

I 3 선사 문화

01.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랴오통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랴오허강 유역의 ❶□□ 문화 : 채도(원통형 토기), 용 모양 옥기, 여신의 얼굴상
중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허강 중류 ❷□□□ 문화 : 토기 표면에 무늬를 넣은 ❸□□ 제작 황허강 하류 ❹□□□□ 문화 : 홍도·회도·흑도·백도, 세 발 달린 토기와 동물 모양 토기 양사오 문화 + 다윈커우 문화 → ❺□□(흑도) 문화 창장강 하류 ❻□□□ 문화 : ❼□□□를 기반으로 발달, 흑도·홍도, 량주(옥기 등) 문화로 발전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❽□□□□ 토기 등 제작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❾□□ 토기, 여성 모양의 토우, 농경보다는 수렵·어로·채집 생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 □□ 토기
 랴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여신의 얼굴상
 눈을 청옥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 특징이다.

▲ 용 모양 옥기
 용을 형상화한 옥기가 제작되었다.

▲ □□ 토기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 □□ 토기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물고기 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 □□ 토기
 황허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한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 문화에서는 초기에 홍도가 만들어졌으나 중기 이후 회도, 흑도가 늘어났다.

▲ 돼지 그림 토기
 창장강 하류 유역의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당시 사람들이 돼지 등을 가축으로 길렀음을 알 수 있다.

▲ □□ 토기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토우



사명감 충만!!

I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01. 청동기 문화의 발전

① □ □ 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발달 • 청동 무기, 재갈이나 등자 등의 마구, 사슴돌과 판석묘 등을 남김
중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 □ □ □ 문화 •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 ③ □ □ □ □ 등 제작 →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 • 상 왕조 : 청동제 무기와 제기 제작
만주 ·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2000년경~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등장 • 비파형 동검, 청동 거울, 반달 돌칼, 고인돌 등을 남김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기술, 청동기, 철기 수용 → ④ □ □ □ □ 문화 시작 • 종 모양 청동기(⑤ □ □ □) 등 청동 제기와 장신구, 철제 농기구와 무기 제작

●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 사슴돌 ▲ 판석묘

□ □ 초원의 사슴돌과 판석묘이다. 사슴돌은 초원 지대에 세워진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판석묘는 시신을 안치하고, 주변에 여러 장의 판석을 세운 것이다.

▲ 야요이 토기 ▲ □ □ □ □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야요이 토기와 종 모양 청동기(□ □ □ □)이다. 종 모양 청동기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 술잔 ▲ □ □ 의 네발 술

□ □ □ □ 문화의 유물인 청동 술잔과 □ □ 의 네발 술은 주로 제사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비파형 동검 ▲ 고인돌

청동으로 제작된 비파형 동검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다.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알려 주는 문화유산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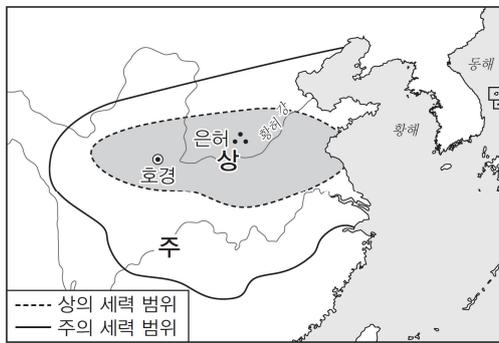
02. 국가의 등장

중국 초기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 • 하(夏) : 기원전 2,000년경 ⑥ □ □ □ 중류 지역에서 성립, 문헌상 최초의 왕조 • 상(商) : 기원전 1600년경 성립, 신정 정치, ⑦ □ □ □ 사용, 은허 유적 • 주(周)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鎬京)을 수도로 삼음 • : 혈연에 따른 종법적 ⑧ □ □ □ (왕이 수도와 직할지 통치, 제후가 지방 통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 • :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왕실 권위 약화
-----------------	---

춘추 전국 시대

- 춘추 시대
: 기원전 770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서북방 유목 세력인 ㉔□□의 침입 → 주가 호경에서 낙읍으로 천도 →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 춘추 5패가 정국 주도(존왕양이)
- 전국 시대
: 기원전 403년 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질서 붕괴 → 전국 7웅 대두(약육강식) → ㉕□□ 등 법가 사상가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추진한 진(秦)에 의해 통일
-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㉕□□□ 도입 :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 •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변법) 실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 •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발, 도시 발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㉕□□□□ 등장 •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의 규모 확대, 전쟁의 양상 변화



▲ 상과 주의 세력 범위



▲ 춘추 전국 시대

진(秦)

- 진시황제
: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전국 통일(기원전 221)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최초로 황제 칭호 사용, 전국적으로 ㉕□□□□ 실시, 3공 9경의 관료제 시행)
: 도량형·화폐·문자 통일, 도로망 정비, 사상 통제(㉕□□□□□)
- 쇠퇴
: 만리장성 축조 등 대규모 토목 공사와 가혹한 법치에 대한 불만 → 진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난 등 농민 봉기 발생

요, 순 등이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의 시황제는 시호 짓는 법을 없애며 이르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행적을 논하며, 신하로서 군주를 의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행적을 비난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자신더러 성인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덕(德)은 삼황(三皇)을 겸하고 공(功)은 오제(五帝)보다 더하다.”라고 하며 마침내 칭호를 고쳐 황제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 것이다. - 『통감절요』 -

한(漢)

- ㉕□□(유방, 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
: 진 멸망 이후 초의 항우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 재통일(기원전 202), ㉕□□□(군현제 + 봉건제)
- ㉕□□(유철, 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 제후의 세력을 억제하고 군현 확대, 흉노 원정을 위해 월지에 ㉕□□ 파견(기원전 139)
: 소금·철 등의 ㉕□□□□ 실시, 상공업 통제
: ㉕□□□□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중시
- 왕망의 황위 찬탈
: 외척 출신으로 (전)한을 무너뜨리고 ㉕□□(新) 건국 →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 단행 → 실패
- 후한(25~220)
: 신이 멸망한 후 호족의 지원으로 광무제(유수)가 건국(도읍 ㉕□□)
: 외척과 환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멸망 → 위·촉·오가 대립하는 삼국 시대 전개

흉노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라시아 북부의 초원 지대에서 성장 • 발전 : ㉑□□ □□가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냄 →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대 통합 • 정치 :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 형성 → 선우 아래 ㉒□□□□과 우현왕 등을 둠
고조선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립 :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 제정일치 • 발전 : 상·경·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㉓□□의 법 제정,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과 대립 • ㉔□□의 집권 : 한 초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㉕□□□) •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
만주·한반도의 여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성립 • 고구려 : ㉖□□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에서 건국 • 삼한 : 마한·진한·변한 성립, 농경 발달, 제정 분리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 전후 ㉗□□□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체 등장 • 3세기경 30여 개의 소국이 히미코 여왕의 ㉘□□□□□을 중심으로 연맹체 형성

03. 중원 왕조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

흉노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시황제 : 흉노를 초원으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 탈환 → 흉노의 재침을 막기 위해 ㉙□□□□ 축조 • 한 고조 : 평성 ㉚□□□ 전투에서 묵특 선우에 패배(기원전 200) → 흉노에 공물과 공주를 보내 화친(기원전 198) • 한 ㉛□□ : 흉노에 대항할 동맹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 : 대대적인 원정으로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냄
베트남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둥·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비엣(남월) 건국(찌에우다, 기원전 203) • 한 ㉜□□ : 남비엣 정복(기원전 111) → 9군 설치
만주·한반도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 • 한 무제 : 고조선과 ㉝□□의 연합을 막기 위해 고조선 정복(기원전 108) → 4군 설치
일본 열도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년 왜의 노국왕이 후한 ㉞□□□에게 조공하고 '한위노국왕'이라고 새겨진 금인을 받음 • 239년 야마타이국의 ㉟□□□ 여왕이 위(魏)에 조공하고 '친위왜왕'이라는 칭호를 받음

●한 ㉛□□의 대외 정책

황제께서 중국이 피폐하여 평안한 나날이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대장군, 표기장군, 복파장군, 누선장군을 파견하여 남으로 백월을 멸망시켜 일곱 군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흉노를 물리쳐 혼야왕 10만의 무리를 항복시키고 다섯 개의 속국을 설치하고 …… 동으로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시어 흉노의 왼쪽 팔을 자르셨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대만을 격파하여 서른여섯 나라를 겸병하시고, 오손과 손을 잡아 둔황, 주취안, 장예의 세 군을 설치하시어 야강(婁羌)을 떼어 놓으시어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 『한서』 -

II 1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1 인구 이동

01. 인구 이동의 배경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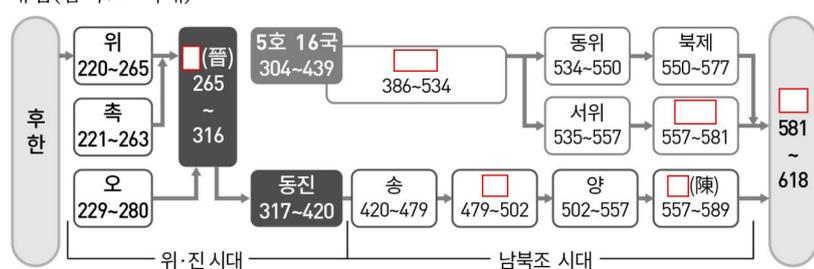
배경	•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정치적 갈등과 이민족의 침략, 국가 간 전쟁 등
특징	• 기원 전후부터 활발 •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으로 연쇄적 인구 이동 야기, 새로운 국가 수립이나 문화 전파 수반

02. 인구 이동의 사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한 말부터 북방 유목 민족이 ①□□ 지역으로 이동 : 4세기 이후 ①□□ 지역에 여러 국가 건국 → 5호 16국 시대(304~439) • 유목 민족(②□□)의 침입으로 ③□□ 멸망(316) : 황족들이 ④□□(난징)에서 동진 건국(사마예, 317), 한족 일부가 ⑤□□□ 이남(강남)으로 이동하여 정착 <p style="text-align: center;">▲ 5호 16국과 한족의 이동</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서)진(晉)의 민제가 흉사를 당했다는 소식이 이르니 왕이 상복을 입고 여막에 살았다. 백관들이 황제 자리에 오르라고 청하였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기침이 말하였다. “진 황실의 대통이 끊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폐하께서 당연히 대업을 이으셔야 합니다. 종실에 속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누구에게 다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장안과 튀양, 두 도읍지는 불타 없어지고 종묘에는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이 서북쪽에서 분수에 넘치게도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있으나, 폐하께서는 바야흐로 동남 지역에서 양보하며 계시니 이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 결국 왕이 황제의 자리에 나아갔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족 : 기원전 1세기경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하 → 고구려 건국 • 고구려인 : 지배층 내부의 갈등으로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 → 온조 집단이 백제 건국 → ⑥□□을 통합하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 확대 • 고조선 유민 :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 →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건국의 토대 마련 • 낙랑군 유민 : 313년 ⑦□□□에 의해 멸망한 이후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 → 백제 발전에 기여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삼국 시대 및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에 많은 주민이 일본 열도로 이주(⑧□□□) • 선진 기술 전파, ⑨□□□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

2 국가의 통합과 발전

01. 남북조 시대의 전개

북위의 화북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세운 북위(탁발도)가 439년 화북 통일 ② 효문제(재위 471~499)의 □□ 정책 <p>: 평성에서 ③ □□으로 천도,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 금지, 한족의 언어와 풍습 수용, 한족의 성씨 사용, 한족과의 혼인 장려 등 → 유목 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가 점차 융합(호한 융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제가 말하길, “짐은 평성에는 조운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의 백성들이 가난하였다고 생각 한다. 짐이 휘양으로 천도한 것은 사방의 조운을 유통하려 한 것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황허강의 흐름이 험난하다고 꺼리고 있으니, 짐의 이번 행차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무릇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니, 예악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모든 북방 언어의 사용을 단절하고 한족의 언어를 따르려 한다. …… 그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이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는 것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만약 고의로 사용한다면 마땅히 관직을 깎아내리거나 쫓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남조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진이 멸망한 이후 송(유유), ④ □□(소도성), 양(소연), ⑤ □□(진패선)의 한족 정권 수립 → 북위 등의 북조와 대립(남북조 시대) 

02. 수·당의 건국과 발전

수	• 6세기 후반에 남북조 시대 통일(589), ⑥ □□□를 여러 차례 침략하였으나 실패
당	• 7세기 초 수의 멸망 이후 중원 장악(618) • 돌궐 및 ⑦ □□ 공격,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

03. 삼국의 항쟁

백제	• 4세기에 고구려와 패권 다툼, 남조·왜와 연결
고구려	• 5세기에 한반도 주도권 장악 → 6~7세기 수·당과 대립
신라	• 6세기에 한강 유역 확보 및 가야 병합,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



04. ④□□□ 정권의 성장

성립	• 4세기경 일본 열도에서 ④□□□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성립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합하며 영역 확대 • ④□□□□□을 만들어 지배자의 권력 과시 • 중국과 한반도 등지의 선진 문물을 수용, ④□□□ 제작, ④□□□ 문화(일본 최초의 불교문화) 발달

3 동아시아 국제 전쟁과 지역 통일 국가의 등장

01. 7세기 동아시아 전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8년 ㉠□□ 연합 결성 → 백제 멸망(660) → ㉡□□ 전투(663) → 고구려 멸망(668) •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 의도 표출 → 신라가 백제·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군을 축출 → 신라의 삼국 통일 완성(676)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이 백제의 영토에 웅진·마한·동명 등 다섯 도독부를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각기 주·현을 통할하였고, 그 우두머리를 세워 도독·자사 및 현령으로 삼았다. 왕문도에게 명해 웅진 도독으로 삼았고, 군대를 총괄하여 그곳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달래게 하였다. • 용삭 3년(663) 황제가 신라에 조서를 내려 그 나라를 계림주 도독부(鷄林州都督府)로 삼고, 김법민(문무왕)에게 계림주 도독(鷄林州都督)을 제수하였다. • 당이 고구려의 영토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을 설치하고, 다시 안동 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지역의 장수 중에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자사 및 현령에 제수하였다. 이어서 설인귀를 보내어 군사를 총괄하여 백성을 위무하도록 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 『구당서』 -</p> </div>
-----------	--

02. 지역 국가의 성립

당	•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하여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
통일 신라	•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
㉢□□	•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건국(698) → 통일 신라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 전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622) : 12계 관위(官位)와 17개 조 헌법을 제정해 일본 정치체제를 확립, 불교 보급 • ㉣□□□를 파견하여(630~894) 선진 문물 수용 • 을사의 변(645) : 나카노오에 황자가 도당 유학생 등의 협력을 받아 소가노 이루카 등 소가씨 세력 제거 • ㉤□□□ □□ : 고토쿠 천황,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개혁 추진 • 7세기 후반부터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를 건설하고 천도(71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겐메이 천황이 조를 내리길, “경사(京師)는 백관이 일하는 곳이고, 천하의 백성들이 귀의하는 곳이다. …… 옛날에 상의 왕은 5번 수도를 옮겨 중흥을 이루었고, 주왕은 3번 천도하여 태평을 이루었다. 지금 나라(平城)의 땅이 길흥에 맞고 점괘도 좋으므로 마땅히 도읍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건설 자재는 사안에 따라 주청하라.”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속일본기』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에 ㉦□□□□를 건설하고 천도(794)

II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1 조공·책봉 관계의 형성

01. 주(周)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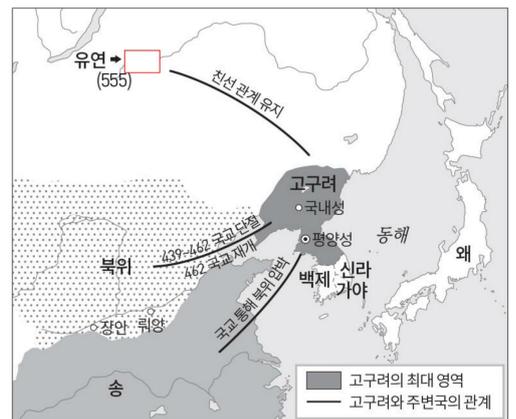
특징	• 주로 혈연을 기초로 왕실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	--------------------------------

02. 한(漢) 대의 외교 관계

고조	•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 →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음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❶□□□(華夷觀) 확립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특징</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중원 왕조</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책봉(지배권 확인)</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주변국</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조공(실리 추구)</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div>
후한 광무제	• 왜의 노국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후 책봉을 하여 금인 하사

03. 남북조 시대의 다원적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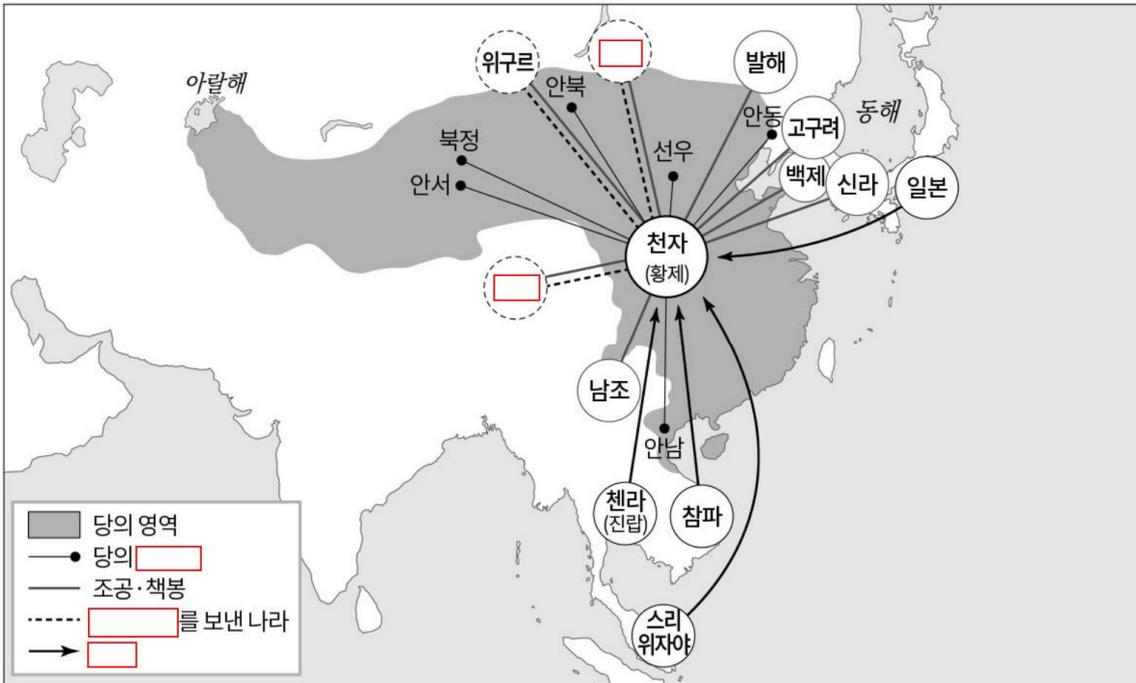
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멸망 이후 각국이 새로운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외교 활동 전개 • 조공·책봉 관계가 강대국 중심의 외교 형식에서 상호 우호 관계 확인을 위한 현실적·다원적 외교로 변화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그대는 지난날 북으로는 유연(402~552)과 통하고 서로는 하·북량·토욕혼과 연결하고 동으로 북연·고구려와 연합해 왔다. 무릇 이 몇 나라는 내가 거의 멸망시켰다. 이로써 보건대 네가 혼자 어찌 설 수 있단 말인가! …… 내가 이제 북으로 유연을 정벌하려는 것은 먼저 강한 적을 없애고자 함이다. 그대가 만약 명을 따르지 않으면 다가오는 가을에 다시 와서 취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각국의 외교 활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남북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td> </tr> <tr> <td>만주 한반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td> </tr> <tr> <td>왜</td> <td>•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td> </tr> </table>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04.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당 중심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국에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정복 활동을 통해 안북·선우·안동·안남 ⑥□□□ 등 설치 		
신라, 발해와 당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수용[신라(713), 발해(762)] : 정권 안정과 선진 문물 도입,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 대처 목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 : 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나당 전쟁, 발해의 산둥반도 공격 등)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당과 ⑦□□ 관계만 맺음 : 견당사 파견(당의 문물 수용 목적) → 9세기 말 파견 중지 신라, 발해와도 사신 교환 		
유목 민족과 당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당 중심의 ⑧□□ 관계 미수용 → 경제적 교류를 위한 ⑨□□ 관계만 원함 경제적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을 공격 → 당이 화친 정책의 하나로 ⑩□□□□ 파견 		
	<table border="1"> <tr> <td>돌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td> </tr> </table>	돌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돌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table border="1"> <tr> <td>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td> </tr> </table>	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table border="1"> <tr> <td>위구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td> </tr> </table>	위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위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자국 중심 천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각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중심에 놓고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을 활용 독자적 연호와 군주 칭호 사용 		

● 당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II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2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01.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중국	• 당 멸망 후 5대 10국 시대(907~979) 전개 → 송이 중국을 통일하여 분열을 수습함
북방 유목 민족	• 거란(요), 서하, 금의 성장 → 다원적 국제 관계 형성

02. 북방 민족의 성장

거란 (916~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가 건국, 수도 상경 임황부 • ②□□ 정복(926), 만리장성 이남의 ③□□□□ 차지(936), 송을 압박하여 ④□□□ □□ 체결(1004) • 이원적 통치 정책 : ⑤□□□□(유목민)·□□□□(농경민) 실시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거란 문자 사용 등
서하 (1038~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구트족 ⑥□□□가 건국, 수도 흥경 • 비단길을 통해 동서 무역 전개 • 책봉과 교역을 둘러싸고 송과 전쟁 → 송으로부터 은과 비단, 차 등을 받음(경력의 화약, 1044)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서하 문자 사용
금 (1115~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⑦□□□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건국, 수도(상경 회령부 → ⑧□□ → ⑨□□□ → 채주) • ⑩□□과 연합하여 거란(요) 공격 → 금이 거란(요) 정복(1125) → ⑪□□을 공격하여 화북 차지 • 서하, 고려, 남송과 ⑫□□ 관계 체결 • 이원적 통치 정책 : ⑬□□·□□□□(여진족, 거란족 등), ⑭□□□□(한족 등) 실시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여진 문자 사용 등

03. 송의 성쇠

문치주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절도사의 권한 대폭 축소, 황제권 강화 추구 • 결과 : 군사력 약화 초래 → ⑮□□·□□에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 유지
남송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의 공격으로 변경(⑯□□□) 함락 → 북송 멸망(정강의 변) → 조구(고종)가 남송을 세우고 ⑰□□(항저우)을 도읍으로 삼음 • 금과 ⑱□□ 관계 체결(소흥화의, 1142)



▲ 11세기 동아시아 형세



▲ 12세기 동아시아 형세

04. 고려의 대외 관계

거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화친 → ⑲□□ □□ 지역 확보 • 3차 침입 격퇴 이후 조공·책봉 관계 유지
금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관이 ⑳□□□□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㉑□□ □□ 축조(1108) • 여진이 금을 건국한 이후 군신 관계 체결
송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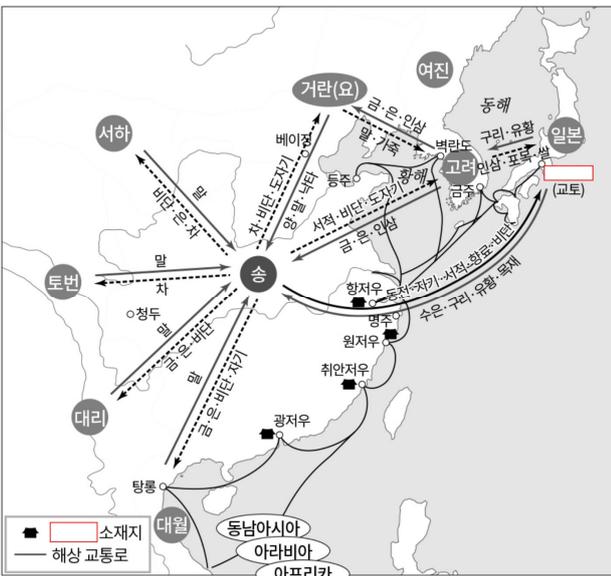
우리나라(고려)는 조상 대대로 귀국과 교류하며 공손히 명령에 따르는 정성을 감히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소. …… 지금 황제의 조서를 보니, …… 고려도 군사를 이끌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금에 천벌을 내리자고 하였고. …… 우리의 모자라고 나약한 병사들로 새롭게 승기를 잡은 오랑캐(금)를 당해 낸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오. 다만 군사를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비하였다가 귀국(북송)의 군대가 저들의 국경을 제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감히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지 않겠소?

- 『고려사』 -

05. 일본의 대외 관계

9세기 말	• 22□□ 파견 중지(894) → 10세기 이후 주변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축소
12세기 말	• 24□□□□ □□□□가 가마쿠라 막부 수립(1185) → 천황으로부터 24□□(정이다장군)으로 책봉(1192) • 주변국과 외교 관계에 소극적, 민간 교류는 지속
민간 차원	• 송의 25□□을 대량으로 수입, 송 상인과 승려를 통한 교류 지속 • 쓰시마를 통한 고려와의 교류 지속

● 동아시아의 교역



3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01.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성립	• 13세기 초 몽골 지역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 통합 →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1206), 예게 몽골 울루스(대몽골 제국) 수립
발전	• 칭기즈 칸(재위 1206~1227) : 26□□·□□제에 기반하여 군사력 강화 : 27□□ 복속(1209)과 정복(1227), 28□ 침공과 화친 조약 체결(1214), 29□의 연경 함락(1215), 30□□□ 정벌(비단길 장악) →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까지 진출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재위 1229~1241) : 31□□ 침공 시작(1231), 32□ 정복(채주 점령, 1234) • 33□□□ 칸(재위 1260~1294) : 카라코룸에서 34□□(베이징) 천도, 국호를 원으로 정함(1271) : 고려 복속(1260), 일본 침공(1274·1281) : 35□□ 정복(애산 전투, 1279) → 유목 민족이 중국 전역 지배

국초를 살펴보면 병사를 관할하는 관원은 병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작위의 준비가 나뉘었다. 만 명의 장정은 만호, 천 명의 장정은 천호, 백 명의 장정은 백호로 삼았다. 세조(쿠빌라이) 때에 관계를 두루 정비하여 내부로는 오위를 설립하여 숙위의 여러 군대를 총괄하게 하고, 위에는 친군도지휘사를 설치하였다. 외부로는 만호 예하에는 총관, 천호 예하에는 총파, 백호 예하에는 탄압을 두었으며 추밀원을 세워 이를 총괄하였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추밀원을 설치하고, 사안이 이미 끝났다면 폐하고 도진무사를 행성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만호, 천호, 백호는 상, 중, 하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만호는 금호부 …… 천호는 금부, 백호는 은부를 소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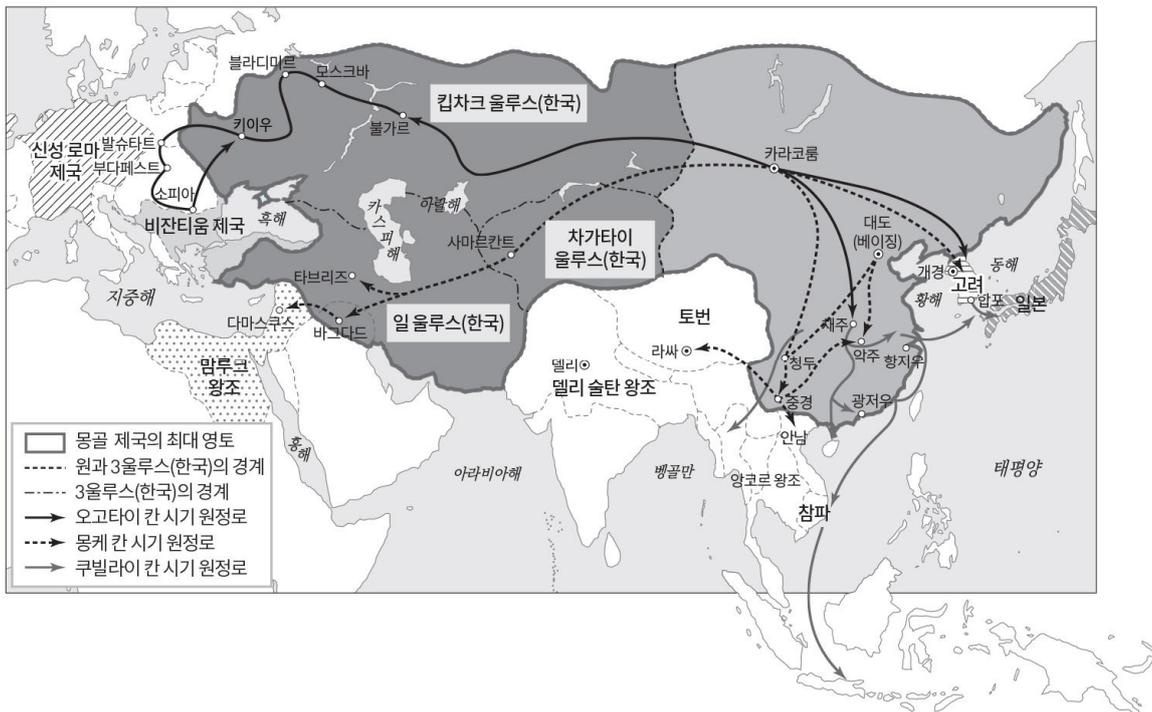
- 『원사』 -

02. 통치 방식

지배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 확립 • 몽골인이 정치·군사 담당, 색목인이 재정 담당, 한인과 1300년(남송의 한인)은 피지배층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설치, 1300년 1300년 파견

03.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 항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로 천도하여 장기 항전 →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 개경으로 환도(1270) → 삼별초의 저항
대월(大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쩐(陳, 1225~1400) 왕조 시기 몽골의 세 차례 침략(1257·1284·1287) → 1300년 1300년의 활약 등으로 격퇴 → 몽골에 조공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두 차례 일본 원정 → 1300년 1300년 막부의 저항과 태풍으로 실패



04.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의 활성화

교역망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 설치, 초원길·비단길 등의 교역망을 안정적으로 확보 • 1300년 1300년 설치 :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서 무역 관리 • 동아시아 교역망 형성 : 고려,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연결 • 1300년 : 12세기 1300년 왕조 시기부터 발행 → 원에서 전국적으로 유통
동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아시아 문물 전래 :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 • 1300년 1300년 1300년 이븐 바투타의 활동 등

- 4□□□ □□ : 원대 중국을 방문한 뒤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유럽에 알려졌다.
- 이븐 바투타 : 모로코 출신의 순례 여행자로 원대 중국을 방문하고 『여행기』를 통해 역참과 교초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4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01. 명(1368~1644)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조 홍무제(주원장, 재위 1368~1398) : 홍건적의 난 가담 → 강남 지역의 한족 지식인을 지원으로 명 건국(1368), 4□□을 수도로 삼음 :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축출, 한족 문화 회복 노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조 4□□□(주체, 재위 1402~1424) : 정난의 변을 통해 즉위, 4□□□을 건설하고 4□□□ 천도 : 몽골 공격, 5□□□의 항해 시작(1405), 5□□□(호 왕조) 침공과 일시적 점령(140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예전에 『도이지략』을 보았는데 천시 기후의 구별, 지리와 인물의 이채로움을 기재하니 '천하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영락 11년에 황제가 정화에게 보선을 거느리고 서쪽 여러 나라들에 가서 황제의 조서를 선포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하였다. 나는 변인들의 책을 통역하는 사절의 말단이 되어 그가 이르는 곳을 따르니 파도의 광대하고 아득함이 그 몇천만 리인지 알지 못한다. - 『영애승람』 - • (선덕) 6년 8월 8일 므라카를 출항하여 18일 수마트라에 도착하였다. …… 11월 18일 고리국에 도착하였다. 22일 출항 후 여러 날을 항해하여 12월 25일에 호르무즈에 정박하였다. (선덕) 8년 2월 18일 출항하여 3월 11일 고리에 도착하였다. 20일에 대장선이 귀항하여 4월 6일 수마트라에 정박하였다. 12일 출항하여 9일 후 20일에 므라카에 도착하였다. - 『전문기』 - </div>

02. 조선(1392~1910)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 위화도 회군(5□□□□) 이후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 건국
-----------	--

03. 무로마치 막부(1336~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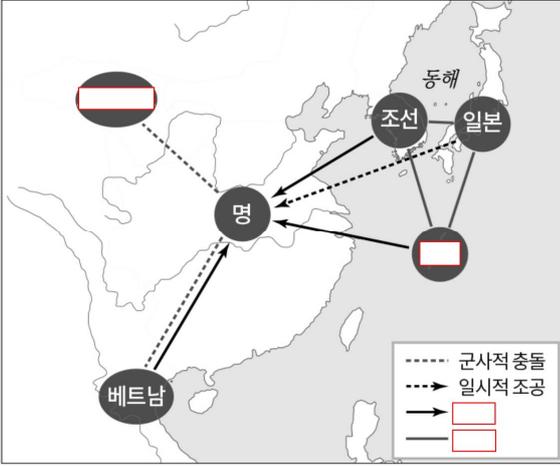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쿠라 막부의 쇠퇴 : 몽골-고려 연합군의 침략 격퇴 → 이후 정치 혼란으로 쇠퇴 → 고다이코 천황과 무사 세력이 연합하여 가마쿠라 막부 붕괴(1333) → 고다이코 천황의 친정 •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5□□□□ □□□□가 교토에 수립
남북조의 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의 천황(북조)을 내세운 무로마치 막부와 요시노로 피신한 천황(남조)의 대립 시작(1336) • 제3대 쇼군 5□□□□ □□□□(재위 1368~1394)가 남북조 시대 통일(1392) →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04. 국제 질서의 재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에 조공·책봉 요구 →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조선, 5□□, 여진, 일본 포함) • 정화의 항해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조공하는 사례 증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직후 요동 정벌 추진(명과 대립) → 태종 즉위 이후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봉 관계 형성(1401)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과 국교 수립 : 명 황제가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1401·1403) : 명과 6□□ □□ 전개(1404~1547) • 조선에서 7□□□ 파견(1429~)
-----------	---

● 15세기 초 동아시아



II 3 유학과 불교

1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01. 율령과 유교

율령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국가 통치 조직·관리 복무 사항·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을 규정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 영(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 위주 법률
법가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시대 : 법가 사상이 활약(㉠□□, 이사 등) 진 : 시황제가 법가 사상에 기반한 통치 → 진의 법률이 한에 의해 계승
유교 통치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 윤리 :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 가족과 향촌 질서 유지 한 ㉡□□ :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 유학 교육 기관인 ㉢□□ 설립
법가 +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대에 정교한 법의 통제와 가족 및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사교가 율령에 반영 → 수·당대에 이르러 율령 체제 완성

춘추의 대일통이란 공간적으로 세상의 영원한 원칙이며, 시간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공통된 이치이다. 현재 학자마다 그 지향하는 진리가 다르고, 사람마다 그 주장하는 이론도 다르며, 온갖 학파가 방향을 달리하면서 그 취지도 같지 않다.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은 통일된 양식을 일관되게 지킬 방법이 없고, 법제가 자주 바뀌어 아래 사람들은 지켜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에 육예의 과목과 공자의 학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금지하여 함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한서』, 「동중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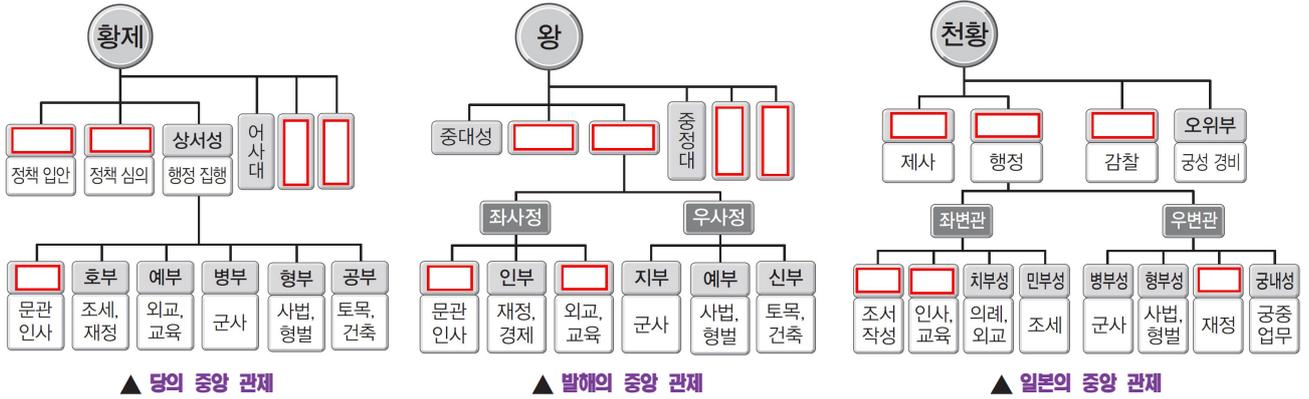
02. 수·당의 통치 제도

율령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율·영·격·식 완성 : 율령에 격(율령 추가·보완), 식(구체적 시행 세칙)을 추가
3성 6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성 : 중서성(정책 입안), ㉣□□□(정책 심의), 상서성(행정 집행) → 황제의 통치 보좌 6부 : ㉤□□(문관 인사), 호부(조세·재정), 예부(외교·교육), 병부, 형부, 공부 → 행정 업무 담당
토지, 수취, 군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영업전·구분전) 지급 조·용·조 : 토지를 받은 농민이 국가에 부담한 세금 ㉦□□□ : 성인 남자의 군역 의무
교육·관리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감(중앙 국립 교육 기관), 과거제로 관리 선발

03. 유교와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치 기구와 이념, 관리 선발, 교육 제도에 영향 ㉧□□□□ □□□□ 형성에 영향 각국의 신분 질서와 관습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국의 율령 수용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백성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한 신라 촌락 문서 작성 골품제 유지,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 학생을 대상으로 ㉨□□□□□□를 마련하여 관리 선발에 참고(788)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성[정당성, ㉩□□□(정책 심의), 중대성] 6부[좌사정(총부·인부·의부), 우사정(지부·예부·신부)] 중정대(감찰), 문적원(출판·도서관), ㉪□□□(중앙 국립 교육 기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호 율령 반포(701) : 2관[㉫□□□(행정), 신기관(제사)] : 8성[좌변관(중무성·식부성·치부성·민부성), 우변관(병부성·형부성·㉬□□□·궁내성)] : ㉭□□□(감찰), 오위부(궁성 경비) : 7도 - 국(國, 중앙에서 관인 파견) - 군(郡, 현지의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 - 리(里)

동아시아 각국의 중앙 관제



04. 과거제의 발전과 영향

과거제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 수(과거제 최초 시행, 587), 송(황제가 최종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 제도 정례화) 한국 : 고려(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 958), 조선(문과·무과·잡과 실시)
과거제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학자 관료층 성장,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 강화

2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01. 대승 불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1세기경 일반 신도를 중심으로 이타행(利他行) 강조,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부처의 자비로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
-----------	--

02. 불교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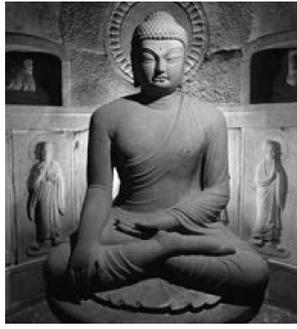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아시아를 거쳐(비단길) 중국에 전래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 시대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과정에서 불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소수림왕 때 16□□에서 수용, 372), 백제(침류왕 때 17□□에서 수용, 384), 신라[고구려를 통해 수용(457),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527)] : 왕족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 통일 신라 시대 원효(617~686), 의상(625~702)에 의해 18□□□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2년 19□□에서 전래(노리사치계), 토착 신앙(신토)과의 갈등 속에서 보급 왕실과 유력 가문의 권력 과시를 위해 대규모 사찰 건립 한반도의 영향 : 호류사 건축(607),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03. 불교의 토착화

20□□ 불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주가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 강화와 사회 안정 추구 국가의 지원과 주도로 대장경 제작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21□□ 시기 원강 석굴 사원(460년 조영 시작)-릉면 석굴 사원, 통일 신라의 황룡사와 석굴암, 일본 나라 시대의 22□□□□(東大寺) 등
-------------------	---



▲ 원강 석굴 사원의 대불



▲ 석굴암 본존불



▲ 도다이사 대불

<p>전통 사상 · 고유 신앙과 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유교 윤리 반영, ㉓『□□□□』(유교의 덕목인 효를 강조한 새로운 불교 경전) 간행 • 한반도 : 산신·칠성·용 신앙 등 토착 신앙과 결합, 사찰 내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세움 • 일본 : 부처도 신토(신도)의 여러 신 중의 하나로 인식, 신토의 신들이 부처나 보살로 나타남(하치만 대보살 등) → ㉔□□□□(神佛習合)으로 이어짐 <p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구야 상인은 기온신사의 우두천왕에게 “원래 우두천왕은 역신(疫神)을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히 원하건대 사람들을 구할 방도를 알려 주시오.”라고 빌었다. 이에 우두천왕은 “십일면관음불상을 만들고 기도하라.”라고 계시하였다. ……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자도 금세 열이 식고 완쾌하였다.</p>
<p>선종의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 중시 • 확산 : 신라 말 호족의 지원을 받아 유행, ㉕□□□□ 막부 시대 무사 사회에서 유행

04. 불교문화의 발전과 확산

<p>불교 예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 불화, 범종 등
<p>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과 탑의 건립(중국은 전탑(벽돌탑), 한국은 석탑, 일본은 목탑 발달)
<p>목판 인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770) • 송·거란(요)·금의 대장경, 고려의 팔만대장경(1236~1251)

05. 인적·지적 교류의 증대

<p>불교문화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교류와 지식 전파의 장소), 승려(구법 활동, 지식인으로 국제 교류) 		
<p>승려들의 교류와 활동</p>	<p>동진</p>	<p>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순례, 『불국기』 저술(416)
	<p>양(梁)</p>	<p>달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승려, 중국에서 선종 창시(6세기)
	<p>고구려</p>	<p>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일(595),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
	<p>당</p>	<p>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에 유학하고 불경을 가져와 번역, 『대당서역기』를 남김(646)
		<p>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일 과정에서 실명 → 나라 도착(754) •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전해 수계(受戒)하는 방식을 전수
	<p>신라</p>	<p>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 개창
<p>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 저술(727) 	
<p>일본</p>	<p>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유학,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음 •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술(838~847) 	

양주부 관원의 질문 : 엔닌, 사미승 이쇼와 이교 뱃사람 데이유만 등은 태주의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찾아보고 태주에서 머물다가 다시 태주에서 수도 장안으로 올라갈 것인가? 또 유학승 엔사이는 사미승 닝코를 데리고 태주의 국청사로 가서 스승을 찾아보고 태주에서 머물다가 다시 태주를 떠나 수도로 갈 것인가?

엔닌의 대답 : 태주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찾아 불법의 의문점을 해결하기를 청합니다. 만약 그 주에 마땅한 스승이 없으면 곧바로 수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 주를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3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당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시 장안 : 발해 상경성(上京城), 일본 헤이조쿄(平城京) 구조에 영향 • 각국의 사신, 유학생, 상인, 승려, 예술가 등 외국인 체류 • 신라방·신라원, 발해관 등 설치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 장보고가 ①□□□(828~851)을 거점으로 당~한반도~일본을 잇는 해상 교역 주도 • ②□□ : 당(중국도), 신라(신라도), 일본(일본도), 거란(거란도) 등과 교류
일본의 견당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문물 수용 → 당풍(唐風) 성행 • 견당사 중단 이후 ③□□(國風) 문화 발달, 예) 가나 문자

4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01. 송대 이전의 유학

한	• 유학의 관학화(통치 이념 역할), 훈고학 발달
남북조	• 불교와 도교의 융성으로 약화
수·당	• 과거제 시행으로 부흥, 당대에 경전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④『□□□□』 편찬(공영달 등, 653)

02. 송대 성리학의 성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부의 성장(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황제 중심의 문신 관료 체제하에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 • 거란(요)과 금 등의 압박으로 송대 한족의 민족의식 강화 → 중화사상, 화이관(華夷觀) 중시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이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 우주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대두(복송, 정호·정이 형제)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사록』 편찬(1175) : 성즉리(性即理) 주장, 거경공리와 ⑥□□□□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 • 성리학 집대성, 오경보다 사서 중시, ⑦『□□□□』 편찬(1177)

03. 성리학의 영향과 보급

성리학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가례』와 ⑧『□□』(1187)의 보급 : 동아시아에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 대의명분과 화이관 강조
성리학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선현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사설 교육 기관, 사대부 결집에 영향 • 향약 : 서민에게 성리학적 규범이 확산되는 데 기여 • 명·청대 신사층이나 조선 시대 양반층에 의해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

04. 성리학의 확산

<p>한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후기 안향 등이 본격적으로 소개, ㉠□□ □□□에 의해 수용·확산 : 고려 말 ㉡□□ □□□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 → 불교와 권문세족 비판 :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 통치 이념, 각종 사회 의례의 기준 • 성리학의 이해 심화 : 우주론과 인간 심성 문제 논쟁 → 학파 형성에 영향을 줌 • 사림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백운동 서원(㉢□□□□)]과 향약 보급 : 이황(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이이(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 개혁 방안 제시)의 성리학 연구 • 성리학적 사회 질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가례』에 의한 관혼상제 확산, 부모 삼년상, 가묘와 사당 건립, 장자 중심의 상속과 제사 확산
<p>일본 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막부 시대 후기에 전래 →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 ㉤□□□□ □□□(1561~1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강항과 교류, 『사서오경왜훈』 집필(1599) • ㉥□□□ □□(1583~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 제자 :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

5 양명학의 발전

<p>등장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이 과거 합격에 치중, 사회 모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곧 이(理)’라는 심즉리(心卽理) 강조 :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앎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 등 실천적 철학 증시 •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 → 신분 제도에 비판적 입장

• 나쁜 냄새를 맡는 것은 지(知)에 속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행(行)에 해당한다. 만일 나쁜 냄새를 맡았다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 나쁜 냄새를 맡고 난 뒤에 달리 결심해 나쁜 냄새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이와 같으니 지(知)와 행(行)을 어찌 따로 떼어 놓을 수 있겠는가.

• 내가 말하는 ㉩□□□□(格物致知)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모든 사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는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 즉 천리(天理)를 모든 사물에 이르게 하면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치지(致知)’이다.

- ㉨『□□□』 -

III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 임진왜란 이전 동아시아의 정세 변동

01. 명의 동요(15~16세기)

국내	• 환관 득세, 향촌 질서 동요	
대외	몽골(북로) 침입	• 15세기 : 오이라트부와 대립 과정에서 ㉠□□□□ □ 발생(정통제, 1449) • 16세기 : 타타르부의 침략으로 수도 베이징이 포위됨(경술지변, 가정제, ㉡□□□□)
	왜구(남왜) 침입	• 명의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은 왜구가 동남 해안 일대에서 약탈 자행

1564년(가정 43) 2월, 왜구의 잔당이 새로운 왜구 만여 명을 규합하여 3일 동안이나 흥화부 선유현을 포위 공격하였다. 척계광은 현성 아래에서 이들을 격파하고 왕창평까지 추격하여 수백 명을 참수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절벽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죽었다. 살아남은 무리 수천 명은 장주부 장포현의 채비령으로 달아났다. 척계광은 군대를 다섯 부대로 나누어 각 병사마다 작은 무기를 휴대한 채 절벽에 매달려 오르게 함으로써 수백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잔당은 고깃배를 탈취하여 바다로 달아났다.
- 『명사』 -



02. 장거정의 개혁(1572~1582)

대외	• ㉢□□과 강화
대내	• 토지 조사 시행, ㉣□□□□ 확대 시행(1581) → 장거정 사후 개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혼란 심화

03. 조선의 정세

국내	• 15세기 이후 공신들이 훈구 세력 형성 • 15세기 말 사림 세력이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 → ㉤□□(士禍) 발생(1498~1545) • 16세기 후반 사림 세력이 정계 주도권 장악 → 봉당(朋黨) 형성(1575) • 토지 겸병의 심화와 방납의 폐단 등으로 농민 부담 가중 • 오랜 평화와 균역 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 약화
대외	• 조선 초 명과 ㉥□□ 외교, 여진과 일본에 대하여 ㉦□□ 정책 추진

04. 일본의 정세

센고쿠 시대	• ㉧□□□ □(1467~1477) 이후 각지의 다이묘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분열 시대 전개 •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 전래(1543) • ㉩□□□□ 전투(1575)의 승리로 오다 노부나가 세력 확대 → 혼노지의 변(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으로 오다 노부나가 자결, 1582)
도요토미 히데요시	•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센고쿠 시대의 혼란 수습(1590) • 전국적인 토지 조사 실시, 도량형 통일 • 농민의 ㉪□□ 몰수(도수령, 1588), 신분 간 이동 금지 • 무사-상공업자의 거주지(㉫□□□□)와 농민의 거주지가 구분됨 → 병농 분리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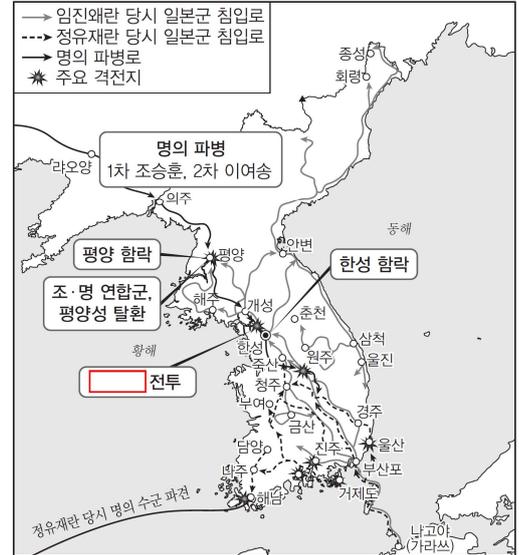
2 임진왜란과 정유재란(1592~1598)

01. 배경

- 영토 확장과 명과의 ㉠□□ 재개에 대한 일본의 열망
- 일본의 국내 정치 안정 도모

02. 전쟁의 전개

임진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의 부산포 급습(1592. 4월) : 일본군의 한성 함락(1592. 5월), 함경도 진격 •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수군(이순신)과 의병의 활약 : 명의 원군 파병(조승훈·이여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공국 보호를 통한 중화 질서 유지, ㉠□□□□ 보호 : 조·명 연합군의 ㉠□□□□ 탈환(1593. 1월) : 명군의 ㉠□□□□ 전투 패배(1593.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제의로 강화 협상 본격화
강화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무리한 요구 : 명 황제의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보낼 것, 명과 일본 간의 무역을 재개할 것, 조선의 남부 4도를 넘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여에 걸친 강화 협상 결렬
정유재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협상 실패 후 일본의 조선 재침략(1597)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 철수(1598)



▲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개

- 화평의 서약이 틀림없으므로 천지가 다하더라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명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을 것
- 양국은 지난 여러 해 동안 틈이 벌어져 감합이 최근에 단절되었다. 관선, 상선이 왕래할 것 ……
- 조선은 작년에 군대를 보내 벌하였다. …… 8도를 분할하여 4도와 국성(國城)은 조선 국왕에게 돌려줄 것이다. ……
- 4도는 이미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일본에 보낼 것

- 『남선구기』 -

03.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와 국토 황폐화, 국가 재정 악화 • 명을 숭양하는 분위기 고조(㉠□□□□(再造之恩,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 • 일본과 국교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체결(1609) → 왜관(倭館)을 통한 무역 허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시마 번주(藩主)에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 쓰시마 번주(藩主)의 세전선은 20척으로 한다. •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항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div>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전투(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쿠가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과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받들던 서군(이시다 미츠나리) 사이에 벌어진 전투 → 동군의 승리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 막부 수립(1603)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 만력제(재위 1572~1620) 시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참여로 재정 소모 • 세금[망세(礦稅)] 징수 과정에서 환관의 횡포 심화(1596) →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 발생
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으로 조선과 명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가 부족 통합(1616)

3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01. 정묘호란 이전의 상황

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세력 확장 → 여진 부족 통합, ㉡□□□ 정비 → 후금 건국(1616) • ㉢□□□□가 랴오둥 진출을 시도하여 명 압박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군(재위 1608~1623) ◦ 명이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우며 후금과의 전쟁에 조선의 출병 요청 ◦ 중립 외교 →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후금을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 → 강홍립 부대 파견 [강홍립은 후금과의 적극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 전투(1619)에서 후금에 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add8e6; padding: 5px; margin: 10px 0;"> <p>평안 감사가 치계하기를, “중국 대군과 우리 군대가 4일 ㉤□□□에서 크게 패전하였습니다. …… 유격 교일기가 앞장서 가다가 갑자기 부차 지방에서 적의 복병을 만나 전군이 패하고 혼자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도둑 유정이 선봉 군대가 불리한 것을 보고 군사들을 독촉하고 전진해 다가갔으나, 적의 대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산과 들판을 가득 메우고 기병이 마구 돌격해 와서 그 기세를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 강홍립은 편복(便服) 차림으로, 김경서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 오랑캐 깃발 아래에 세워 두고 오랑캐 진영으로 갔는데, 적은 강홍립과 김경서로 하여금 우리 군대를 타일러 갑옷을 벗고 항복하게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광해군일기』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재위 1623~1649) ◦ 인조반정(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중립 외교 실시 등의 구실로 축출,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 ㉥□□□□) → 왕으로 즉위 ◦ 집권 세력인 서인이 ㉦□□□□(親明排金) 정책 시행

02. 정묘호란(1627. 1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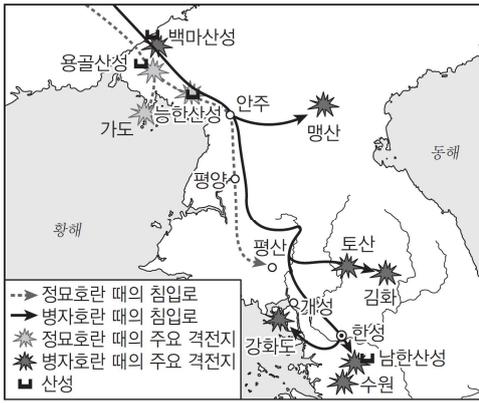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반정 이후 조선의 ㉧□□□□ 정책 • ㉨□□ 사건[가도 도독부 도독 모문룡(㉩□□□□~1629)에 대한 조선의 지원 강화] → 명의 인조 책봉(1625)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 침략 → 인조의 강화도 피난 → 2개월간 지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의 맹약을 맺고, 세폐(歲幣)를 받는 조건으로 철수

적이 쏠살같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 첫째는 땅을 갈라 주어야 할 것, 둘째는 모문룡을 잡아 바쳐야 할 것, 셋째는 군사 1만 명을 빌려주어 남조(명)를 함께 치도록 할 것 등이었다. 임금께서는 난리를 피해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 적의 장수 유해는 평산으로부터 강도로 들어가 임금을 꼭 뺏자고 하였다. 임금은 하는 수 없어 그의 요청에 따라 상읍례를 억지로 행하게 되었다. 그는 또 천계(天啓, 명 희종 시기) 연호를 없애라고 위협한 다음, 왕자를 볼모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실 사람을 왕제(王弟)로 삼아 보내게 되었고, 강도 서문 밖에 단을 쌓고 재신에게 백마와 오우(烏牛)를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맹약을 맺도록 하였다. 4월에야 임금이 환도하였다.

- 『성호사설』 -

03. 병자호란(1636. 12월~1637. 1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의 홍타이지(재위 1626~1636~1643) ◦ 칭제건원(稱帝建元) → 황제를 칭하고 연호 '승덕(崇德)' 사용, 국호를 청으로 변경(1636) ◦ 조선에 ㉫□□ 관계 요구 → 조선 내에서 ㉬□□□□과 주화론 대립 → ㉭□□□ 득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타이지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 침략 → 인조가 ㉮□□□□에 피신하여 항진
결과 ·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 → 대청 황제 공덕비 건립(1639) • 조선 ◦ 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 ㉯□□과 외교 관계 단절, 청의 요구로 명과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 제공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삼학사(三學士) 등을 청의 심양(瀋陽)으로 압송 ◦ 효종(재위 1649~1659) 때 ㉺□□□ 대두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전개

병자년과 정축년의 일은 하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 같은 것들이 뿔박해 와 우리를 남한산성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삼전도에서 곤욕을 주었으며, 우리 백성을 도륙하고 우리 의관(衣冠)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선왕께서는 종사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 수치심을 버렸습니다. …… 우리나라의 정예로운 병력과 강한 활 솜씨는 천하에 소문이 난 데다가 화포와 조총을 결들이면 넉넉히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사 1만 대(隊)를 뽑아 베이징을 향해 기어코 앞으로 나아가고 …… 청(靑)·제(齊)·회(淮)·절(浙) 등지에 격서를 전하고 서촉(西蜀)까지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미워하고 같이 떨치어 일어나게 한다면 적들의 교활한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천하의 충의로운 기운을 크게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종실록』 -

4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문물의 교류

01.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말기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 발생 → ㉔□□□의 난으로 베이징이 점령되면서 명 멸망(1644) • ㉕□□□의 난 이후 오삼계 등의 도움으로 청이 산해관 전투에서 승리 → ㉖□□□ 입성, 중원 장악 • 강희제(재위 1661~1722) : ㉗□□□ □(1673~1681)과 ㉘□□□의 반청 세력(정성공·정경 등) 진압(1661~1683) • 건륭제(재위 1735~1795) : 티베트, 신장, 몽골을 포함하는 영토 확보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멸망 이후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㉙'□□ □□□□' 확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 막부는 청과 ㉚□□를 맺지 않았으나, 조선과는 외교관계 유지

02. 전쟁을 통한 문물의 교류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㉛□□(降倭)를 통해 조총 제조, 사신을 통해 화포 제작법 입수 •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에 담배, 고추 등 신작물 전래, 관우 숭배 사상 유행 • 벨테브레이(1627), 하멜(1653) 등 표착(漂着)한 서양인을 통해 화포 등 서구 문물 수용 • 청에 포로로 끌려갔던 소현세자는 ㉜□□ □□과 교류 → 천주교 서적 등을 가지고 귀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과정에서 조선의 서적과 구리 활자·불화 등 약탈 • 유학자(강항)와 도공(㉝□□□) 등의 기술자를 포로로 끌고 감 → 에도 막부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

공의 휘는 충선, 자는 선지, 성은 김씨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일본 사람으로, 본성은 사씨이고 이름은 야가이다. 만력 20년 임진년에 가토 기요마사가 군사를 이끌고 침입할 때, 공은 선봉장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넜다. …… 절도사 박진에게 강화하고 투항하였으며, 이후 협력하여 왜군을 무찌르고 많은 공을 세웠고, …… 조총과 탄약 제조 기술 등을 우리나라에 전수하였다. 이로 인해 군졸은 모두 정예 부대가 되고 병기도 최고 수준에 이르자, 도원수 권율이 조정에 장계를 올렸고, 조정은 공을 자헌대부로 승진시키며 성과 이름을 하사하는 총애로 이에 보답하였다.

- 『모하당문집』 -

03. 사절단의 왕래

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 재개(1607),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㉟□□□(회답 겸 쇄환사) 파견
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파견 → 청과의 교류 과정에서 ㊲□□□ 운동 대두

●○○○의 파견(1607~1811)

-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필적만 얻으면 해서(楷書)이건 초서(草書)이건 우열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 기뻐서 날뛰었다. 그리하니 글씨를 구하는 자가 연이어 끊어지지 않고,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관리뿐만 아니라 일행 가운데 조금이라도 글씨를 쓸 줄 아는 이는 그 간절한 요청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배를 탄 뒤에도 뒤따라와서 손을 모으고 애걸하여 글씨를 쓰는 자가 붓을 물에 씻을 겨를도 없었다. 그리하여 중간에서 소개하던 쓰시마의 통역들은 뇌물까지 받는다고 하였다.

- 『해사일기』 -

- 일본국 타이라노 요시카츠가 조선국 예조 참판 대신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 이번에 쇼군이 새로 즉위하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관례에 따라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기사년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쓰시마에서 맞이하여 예를 잘 갖추어 수행하는 것은 지난번 고한 것과 같게 하겠습니다.

- 『순조실록』 -

